



[현대세계의 전개]

폭력과 침략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Japanese History Textbook Distortion

일본의 역사 왜곡

우리가 역사의 의미를 찾고,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현재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기록을 객관적으로 반성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역사를 자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당시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를 교과서에 담아 일본의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본이 어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근대화? 조선에 대한 침략!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든 것은 일본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러시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조선은 일본의 보호 아래 근대화를 이룩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선이 러시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간다면, 일본을 공격하는 아주 절호의 기지가 되어 일본의 자국 방위에 곤란하게 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 조선의 근대화를 원조하였다.”

-일본 후쇼사 역사 교과서-

하지만,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러시아와 대립하기 이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도와주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후 일본의 이익을 위해 토지, 산업, 인구 등 조선의 자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근대화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만들었다는 철도는 조선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도를 이용하여 조선의 각종 자원을 일본으로 운반하고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착취와 침탈을 당한 조선의 경제적 피해와 그 속에서 흘린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 일본의 수탈

식민지 확장을 위해 조선인의 강제 동원

일본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아시아의 전 지역을 식민지로 갖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대부분 나라는 이미 영국과 미국 등의 서양 제국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일본은 이러한 전쟁이 아시아의 독립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의 목적은 …… 아시아를 구미에서 해방하고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함에 있다고 선언했다. …… 일본의 …… 승리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많은 사람에게 독립을 향한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일본 후쇼사 역사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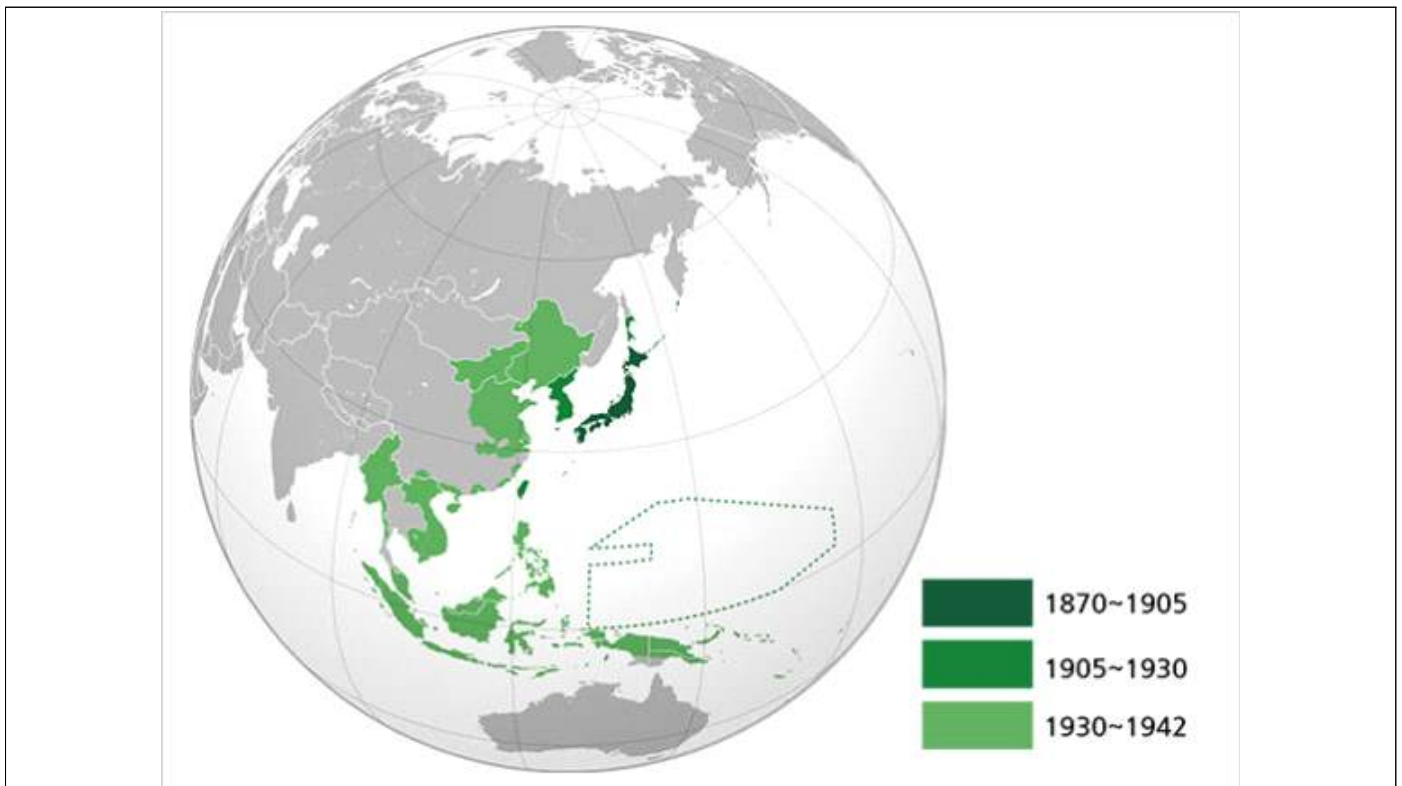
대동아 공영권은 일본에 의해 주도되는 아시아의 연합입니다. 일본은 서양 세력에 대항하여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 연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일본이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서양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침략합니다. 이 전쟁에 이미 점령하고 있던 일본, 조선, 만주국, 중국의 자원을 동원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가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 중국 침략을 위한 선전 포스터



| 대동아 공영권 선전 우표



| 일본의 수탈



반인륜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이용된 피해자들을 말합니다. 일본의 교과서는 위안부와 관련된 서술들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에 연행되어'라는 표현을 '식민지에 모집된 여성'들로, '위안부로 끌려갔다'라는 표현을 '위안부로 보내졌다'라는 강제성이 빠진 표현으로 수정하거나 아예 내용을 제외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러한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정부에 의한 국가적 행위가 아닌 민간업자와 일본군 '위안부'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 행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의 기록들과 현재 우리 곁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일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취업 사기, 협박과 폭력에 의한 동원, 인신매매, 유괴 등의 방법으로 조선의 여성들을 아시아 각지의 위안소로 끌고 갔습니다. 위안부라는 제도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한 것은 일본 정부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도 개인의 왜곡된 기억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적절한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성언커녕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평화의 소녀상



일본은 왜 역사를 왜곡하는가?

역사 왜곡과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우경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경화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회가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일본의 우경화는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이를 미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며 타국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우경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일본을 집권하고 정당과 일본의 천황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세력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여 자신들의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청소년들은 사회와 국가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장기 불황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부의 결속력을 키우고, 청소년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심어 주어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본의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제정된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 헌법에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적 침략은 인류에게서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폭력의 역사입니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들이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침략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익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는 일본이 군사 강국이 된다면, 이러한 아픔의 역사가 다시 주변국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본에게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합니다.

탐구 과제

- 일본의 우경화가 역사 왜곡과 역사 교과서 왜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관련 단위

-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 중학교 1~3학년군 현대 사회의 전개

통어 정리

제국주의 :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것

미화 : 아름답게 꾸며서 말하는 것